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윤 지 희[†]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특징적인 방식인 대인관계 패턴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핵심갈등관계 주제(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CCRT; Luborsky & Crits-Christoph, 1998)의 정의를 이용하여 대인관계 패턴을 소망(Wish), 타인반응(RO) 그리고 자기반응(RS)으로 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소망(Wish) 7 요인 51문항, 타인반응(RO) 8 요인 53문항, 자기반응(RS) 6 요인 58문항을 추출하였다. 또한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 원형척도(IIP-C)와의 상관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렴타당도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그 결과, 소망(Wish)에서 '반대하고 통제하고 싶음', '독립적이고 싶음'은 통제차원과 '믿고 잘 지냄', '보호받고 의지하고 싶음', '사랑받고 싶음'은 친애차원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 나는 등 대체로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와 IIP-C와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논의해보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대인관계 패턴,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CCRT, CRQ

[†] 윤 지 희, (133-861)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10, 성동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전화 : 02-2297-7887 E-mail : freedei@dreamwiz.com

이론적 지향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왜곡된 대인관계 패턴을 교정하는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정신역동적 상담에서는 대인관계 맥락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근거로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 속에 적절히 개입하여 내담자의 왜곡된 대인관계 패턴을 수정하게 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Strupp & Binder, 1984). 대인관계 패턴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신념과 거기에서 비롯된 개인 특유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생애 초기에 중요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본적인 표상이 형성되고 이것이 이후의 관계들에 영향을 미친다(Bond, J., Hansell, J. & Shevrin, H., 1987; Luborsky, 1985, 1991). 연구자들은 이것을 이론적 지향에 따라 '전이', '인물원형', '도식'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유사한 개념을 다른 용어로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만큼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치료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역동적인 대인관계를 잘 기술하고 드러낼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고된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핵심 갈등 관계 주제 (Core Conflict Relationship Theme: 이하 CCRT; Luborsky & Crits-Christoph, 1976, 1977, 1990)가 있다(다른 측정도구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Baber, Crits-Christoph, 1993을 읽어 보기 바람). CCRT는 Luborsky와 Crits-Christoph (1976, 1977, 1990)가 Freud의 성격과 정신병리에 대한 구조이론에 영향을 받아 임상경험에 기초해서 개발한 대인관계 패턴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상담 녹어록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개인의 역동이나 전이의 특성으로서의 관계패턴에 초점을 맞추어 한 개인에게 반복적

으로 일어나는 핵심 관계패턴을 찾아내어 이를 중심으로 일반적 관계패턴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있다.

CCRT에서는 이러한 관계일화 속에서 나온 대인관계 패턴을 내담자의 소망(Wish), 타인반응(Response from Other, 이하 RO), 자기의 반응(Response from Self, 이하 RS) 3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추론하고 평정한다. 첫째, Wish는 내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는 요구나 의도를 말한다. 둘째, 타인반응(RO)은 관계일화에서 대상이 된 상대방이 내담자에게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셋째, 자기반응(RS)은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내담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대인간 소망) 바라고, 요구하고 혹은 의도한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은 어떻게(타인반응) 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자기반응) 된다는 구조를 가진다. 이때 추론은 훈련받은 평정자의 추론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Luborsky 등이 만들어 놓은 유목(표준범주)들이 자주 사용된다. 이 유목은 모두 3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판은 상담 녹어록을 분석하여 가장 자주 사용된 범주에 기초하여 만들었으며, 2판에서는 초기범주를 크게 확장시켜 35개의 Wish, 30개의 RO, 31개의 RS를 만들었다(Crits-Christoph, Luborsky, Dahl, Mellon, & Demorest, 1988). 그리고 3판에서는 2판의 유목들을 군집분석을 통해 각각 8개의 요소로 다시 감축하였다. CCRT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이것이 비교적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Luborsky, Barber, & Crits-Christoph, 1990; Luborsky & Crits-Christoph, 1990). 그리고 이 도구를 통해 대인관계 패턴의 특징과 상담성과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Luborsky, McLellan, Woody, O'Brien과 Averbach (1985)는 8명의 사례분석을 통

해 대개 타인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주된 핵심주체가 있고 이것이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 과도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Crits-Christoph 와 Luborsky(1990)는 3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어냈다. 또한 치료자에 대한 내담자의 소망, 치료자의 반응 그리고 치료자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 등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해석은 바람직한 상담성과와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였다(Luborsky, Baber & Crits-Christoph 1990). 국내에서도 하정혜(1994), 김수진(1997), 신희천(2001)등을 통해 CCRT를 이용한 대인관계 패턴의 구조적, 과정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연구의 성격상 이용된 사례수는 20-30사례 정도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나타내 주고 있긴 하나, 사례수에서 볼 때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은 도구의 특성에서 기 인하는데, 평정에 기초한 방식은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데에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자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어서 연구 수행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CCRT에 기초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Barber 등(Barber J. P., Foltz C & Weinryb R.M., 1998)은 CCRT의 표준유목과 임상가들의 경험에 기초한 문항을 개발하여 핵심관계질문지(Central Relationship Questionnaire)를 만들었다. 그리고 CRQ의 구성요소가 다양한 요인들로 구분될 수 있고 요인들로부터 도출된 하위항목들이 내적 일관성,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리고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대인관계 패턴과 관련된 연구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패턴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인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를 개발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 첫째, CCRT의 표준 범주의 내용을 기초로 예비문항을 구성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을 추출하여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를 개발할 것이다. 둘째,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에 대한 요인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이 척도가 구성타당도를 갖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대인관계문제 유형을 평가하는 도구인 대인관계 문제 원형 척도(IIP-C)와의 상관을 통하여 특정한 소망(Wish), 타인반응(RO) 그리고 자기반응(RS)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대인관계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구성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가장 다양한 유목들로 구성되어있어 질문지 문항들을 개발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CCRT의 표준 범주 2편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Baber 등(1998)이 개발한 CRQ를 번안하여 문항을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 예비문항은 소망(Wish) 122문항, 타인반응(RO) 110문항, 자기반응(RS) 121문항이었다. 이 중 CRQ 문항 101개를 연구자가 1차 번안한 후, 현재 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외국어에 능통한 심리학 관련 전공자에게 교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성된 문항들에 대하여 심리학과 대학원생 및 심리학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 15명에게 문항의 의미를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게 한 후, 2점 이하로 평정된 문항들을 수정, 삭제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예비문항은 소망(Wish) 87문항, 타인반응(RO) 74문항, 자기반응

(RS) 84문항이었다. 마지막으로 CCRT 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담심리 전문가 2명에게 문항의 안전타당도를 검토받은 후, 예비문항 선정작업을 마감하였다.

대상

표본대상은 두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첫번째 집단(표본 1)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245명과 직장인 15명으로 구성된 260명이었다. 이 중 남자는 59명(22.7%), 여자는 201명(77.3%)이었다. 평균 연령은 22.2세(표준편차 5.0), 범위는 만 18세에서 49세였다. 두 번째 집단(표본 2)은 수도권 및 지방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409명과 직장인 71명으로 구성된 480명이었다. 이 중 남자는 217명(45.2%), 여자는 263명(54.8%)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3.6 세이며 범위는 18세에서 57세까지였다.

도구

핵심갈등관계 주제(Core Conflict Relationship Theme: 이하 CCRT로 약칭함) 표준유목 2판

CCRT 제 2판은 상담축어록 분석과 Murray (1938)의 욕구목록 등의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여 만들었으며 35개의 Wish, 30개의 RO, 31개의 RS 유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각의 유목들이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들을 갖고 있어 Wish 80, RO 76, RS 75 로 모두 232 개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중심관계질문지(Central Relationship Questionnaire: 이하 CRQ로 약칭함)

Barber 등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연애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가 가장 안좋았을 때

의 상황에서 응답자가 느끼는 소망(Wish), 타인반응(RO), 자기반응(RS)을 7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Wish 7개, RO 7개, RS 8개의 유목으로 구성되었고 총 139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78~.95의 신뢰도를 가지며 수렴 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 원형 척도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IIP-C)

내담자의 대인관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Alden등(1990)이 개발한 자기 보고식 척도로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나는하기 어렵다'와 '너무 많이 ...한다'라는 두 가지 종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자신이 그 문제로 인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남운(2001)이 번안한 한국판 IIP-C를 사용했다. 전체 신뢰도는 .95이며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76~.86이었다.

절차 및 분석방법

표본 1의 표본대상에게 예비문항으로 구성된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얻어진 자료로부터 예비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질문지의 최종문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표본 2의 표본대상에게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와 IIP-C를 실시하였다. 얻어진 자료로부터 표본 1과 같은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질문지의 요인구조가 일관성 있게 반복되는지를 알아보고,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와 IIP-C의 상관분석을 통해 특정한 Wish, RO, RS 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 과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요인구조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본 1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표본 2를 통해 다른 표본에서도 같은 요인구조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소망(Wish), 타인반응(RO), 자기반응(RS)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이므로 각각을 따로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에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성격을 볼 때 각 요인들이 서로 상관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하였다. 요인의 수는 누적분산비율과 스크리 도표, 그리고 요인의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분석 결과 표본 1과 표본 2의 요인구조는 대체로 일치했다. 표본 2에서 문항의 변동이 몇 개 있었으나, 모두 상관이 높은 요인간의 이동이었다. 하지만 요인분석에서 정확히 동일한 구조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표본 1의 요인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더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의 분석에서는 표본 1의 요인구조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각 구성 요소의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망(Wish)

요인 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치 1.0을 넘는 요인의 수는 1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스크리 도표와 요인의 해석 가능성을 기초로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의 수는 6개 혹은 7개의 요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요인을 가능한 많이 추출하는 것이 설명변량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이유 때문에 요인 수를 7개로 결정하였다. 문항 추출 결과, 소망(Wish)의 예비문항 87문항 중 7개의 요인에 속하는 문항은 51개로 선정되었다. 이 7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59.87%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별 문항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고 요인명을 정하였다. 요인 1은 상대방을 돕고 싶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편안함과 유대감을 느끼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요인 1을 ‘돕고 싶음’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반대하고 통제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요인 2를 ‘반대하고 싶음’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상대방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고 스스로 결정내리고 싶은 소망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요인 3을 ‘독립적이고 싶음’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유능하고 싶고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소망들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요인 4를 ‘성취하고 싶음’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상대방을 믿고 잘 지내고 싶은 소망을 반영하며 이를 ‘믿고 잘 지내고 싶음’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 결정을 내려주고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소망과 보호받고 의지하고 싶은 소망을 반영하며 이를 ‘보호받고 의지하고 싶음’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7은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은 소망과 버림받고 싶지 않은 소망을 담은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요인 7을 ‘사랑받고 싶음’으로 명명하였다.

타인반응(RO)

Wish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고유치 1.0을 넘는 요인의 수는 12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개의 요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비문항 74문항 중 8개의 요인에 속하는 문

표 1. 소망(Wish)의 요인부하량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16 그녀가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느꼈으면	.748	-.080	.099	-.067	-.024	-.117	.134
29 나는 그녀를 격려하고 싶다.	.718	-.099	.024	-.068	.063	-.055	-.074
20 나는 그녀가 아플때 돌봐주고 싶다.	.679	-.040	-.134	.057	.095	-.037	-.104
44 나는 그녀를 돕고 싶다	.663	-.093	.013	.028	.199	-.015	.091
27 나는 그녀가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594	-.112	.039	-.027	.154	-.061	-.081
15 나는 그녀에게 유대감을 느끼고 싶다.	.582	.067	-.131	-.027	-.034	.034	-.233
37 그녀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싶다.	.565	-.058	.003	.008	.237	.017	-.273
33 나는 그녀를 화나게 만들고 싶다.	.057	.768	-.022	.081	-.003	-.028	.105
6 그녀에게 상처주고 싶다	-.041	.759	-.123	-.079	-.024	.086	-.068
52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다	-.005	.648	.077	.295	.156	.049	-.039
25 나는 그녀를 피하고 싶다.	-.031	.596	.151	.118	-.058	.010	.118
74 나는 그녀에게 반대하고 싶다.	.000	.587	.175	.044	.004	.003	.094
14 나는 그녀에게 반항하고 싶다.	-.024	.557	.016	-.096	-.052	-.098	-.165
21 나는 그녀를 휘어잡고 싶다.	-.073	.556	-.015	-.042	-.044	-.152	-.262
10 나는 그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052	.530	-.173	-.179	-.059	-.094	-.236
24 나는 그녀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다.	-.087	.502	.120	-.042	-.175	-.029	.147
39 내가 몹시 화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	.002	.498	.102	-.176	.112	-.142	.009
8 나는 그녀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다.	-.156	.390	.221	-.047	-.148	-.019	.060
36 나는 그녀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다.	-.001	.088	.748	.074	.065	.054	.023
81 나는 그녀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다.	-.161	-.057	.657	-.137	.023	.037	-.158
60 그녀와의 관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006	.101	.635	.113	-.105	-.127	.051
43 내 자신의 일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다.	.097	.104	.506	-.241	-.138	.056	.064
45 내 스스로 결정내리고 싶다.	.168	.047	.442	-.158	.065	.119	-.089
67 나는 유능하고 싶다.	-.061	-.012	-.087	-.913	.205	.033	.037
72 내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고 싶다.	.007	-.017	.047	-.629	.254	-.064	-.018
50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	.199	.047	.070	-.579	-.113	.095	-.223
71 나는 완벽하고 올바르게 싶다.	.026	-.048	.099	-.444	.053	-.125	-.026
87 나는 자율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096	.055	.313	-.438	.207	.141	.029

표 1. 계속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65 나는 그녀를 믿고 싶다.	.175	-.057	-.073	-.168	.679	-.080	.001
83 나는 그녀에게 마음을 터놓고 싶다.	.106	-.008	.024	-.109	.616	-.012	-.112
82 나는 그녀와 잘 지내고 싶다.	.082	-.011	.044	-.324	.582	.049	-.103
66 나는 그녀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싶다.	.210	-.004	-.027	-.195	.549	-.125	-.117
77 나는 그녀를 존중하고 싶다.	.378	-.129	.155	-.127	.441	-.118	.062
46 그녀가 나를 이끌어주었으면 좋겠다.	.053	-.045	.053	-.020	-.075	-.771	.007
85 나는 그녀에게 보호받고 싶다.	-.044	-.097	.091	.010	.062	-.766	-.197
64 나는 그녀의 보살핌을 받고 싶다.	-.062	-.073	.079	-.021	.086	-.727	-.253
38 나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067	.189	-.041	-.023	-.075	-.649	.145
63 나는 그녀가 시키는대로 하고 싶다.	-.030	.149	-.177	.120	.067	-.526	.017
53 나는 그녀에게 도움받고 싶다.	.108	-.028	-.021	-.015	.108	-.463	-.176
7 그녀에게 의지하고 싶다.	.174	.033	-.098	-.187	.061	-.448	.033
35 나는 그녀가 요구하는대로 따르고 싶다.	.151	.179	-.247	.106	.116	-.353	.015
23 나를 무관심하게 평가쳐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195	.032	-.075	-.119	.064	-.043	-.615
22 그녀가 나를 좋아해주었으면 좋겠다.	.341	-.022	-.049	-.149	-.081	-.114	-.553
49 나는 그녀에게 이해받고 싶다.	.078	.097	.057	-.144	.164	-.107	-.523
79 나는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다.	-.100	-.060	.014	.040	.242	-.185	-.520
19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423	-.003	-.106	-.041	-.018	-.054	-.475
62 나는 그녀에게 거절당하고 싶지 않다.	.059	.083	.091	-.075	.192	-.146	-.444
51 나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갖고 싶다.	.297	.000	.103	-.062	.070	-.009	-.419
28 나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372	.121	.127	-.076	-.117	-.215	-.378
55 나는 그녀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	.255	.034	.039	-.031	.211	-.093	-.377
58 나는 그녀에게 수용받고 싶다.	.031	.106	-.037	-.080	.144	-.194	-.358
고유치(eigenvalue)	13.89	5.94	4.33	1.88	1.74	1.41	1.35

항은 53개로 선정되었다. 8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63.94%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요인 1을 '신뢰할 수 없음'이라고 명명하였

다. 요인 2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도움을 준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요인 2를 '사랑하고 도움을 줌'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상대방이 독립적이며, 자신만의 색깔을 갖고 있고, 책임감이 있다는 내용들로 구성되었

표 2. 타인반응(RO)의 요인부하량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28 그녀는 나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	.788	-.003	.019	-.046	-.016	.136	.042	-.088
65 그녀는 든든하지 않다.	.662	-.077	-.128	.081	-.084	.023	.150	.088
30 그녀는 나를 믿지 않는다.	.636	-.008	.022	.043	.110	.057	.094	.252
38 그녀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576	-.120	.008	-.091	-.179	.055	-.068	.259
49 그녀는 나를 속인다	.576	.121	-.056	-.148	-.105	.226	-.076	.124
36 그녀는 나를 실망시킨다	.545	-.068	-.050	-.116	-.020	.075	.220	.037
42 그녀는 의지할만하지 않다	.543	-.101	-.011	-.058	-.061	-.013	.029	.132
37 그녀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393	.007	-.071	-.113	.103	.257	.018	.359
63 그녀는 나쁘다.	.385	-.015	-.018	-.023	.102	.203	.221	.144
40 그녀는 나를 이해한다	-.101	.746	.028	.148	-.097	.044	-.101	.072
39 그녀는 나를 존중한다	-.138	.659	.155	.153	-.060	.083	.074	-.125
66 그녀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	.086	.613	.093	-.150	-.021	-.314	.208	-.096
46 그녀는 나를 좋아한다	-.027	.602	-.022	-.195	-.053	-.242	.179	-.144
8 그녀와 나는 정서적으로 가깝다.	.050	.597	.104	.082	-.109	-.109	-.207	.121
25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047	.560	-.032	-.201	-.098	-.189	.274	-.221
74 그녀는 나에게 스스로없이 대한다.	-.102	.539	.097	-.065	-.032	-.267	-.098	.212
15 그녀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079	.517	.023	-.170	-.215	-.196	.217	-.038
73 그녀는 나에게 협조적이다	-.141	.504	.100	.032	.035	-.126	-.173	-.015
69 그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준다.	-.119	.462	.161	.204	-.038	.232	.105	-.086
32 그녀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	-.385	.447	.120	-.055	-.115	.002	.010	.224
34 그녀는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068	.073	.741	-.108	-.031	-.025	-.047	-.035
19 그녀는 독립적이다	.009	-.104	.710	.036	.045	.153	-.038	.004
26 그녀는 강하다.	-.151	-.011	.643	.009	-.067	-.037	.036	.018
10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한다.	.145	.005	.615	.006	.086	-.062	-.036	-.063
1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갖고있다	.037	.139	.457	-.216	.138	-.087	.033	-.061
52 그녀는 책임감이 있다	-.224	.176	.421	.281	-.186	-.034	.143	.058

표 2. 계 속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6 그녀는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018	-.064	.075	-.708	-.092	.105	.133	.118
11 그녀는 나를 자기뜻에 맞추려고 한다	.012	-.102	.159	-.633	-.092	-.047	.088	.127
7 그녀는 제멋대로이다	.202	.006	.033	-.614	.099	.305	.027	.119
17 그녀는 부분별하게 행동한다	.355	.093	-.100	-.539	-.029	.156	-.179	.047
9 나의 말이나 행동에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 .	-.021	.045	.034	-.409	-.025	-.046	.269	.102
16 그녀는 나를 통제한다.	-.034	-.093	.036	-.394	-.062	-.146	.347	.303
12 그녀는 나에게 상처를 준다.	.166	-.074	.113	-.351	.062	.270	.306	.082
3 그녀는 나에게 순종적이다	.011	.093	-.159	-.011	-.771	.082	.009	-.073
13 그녀는 내가 시키는대로 한다 .	.098	-.114	-.035	-.096	-.760	-.038	.040	.026
22 그녀는 나에게 쉽게 양보한다 .	-.115	.236	.000	.015	-.628	.042	.006	-.069
5 그녀는 나에게 자상하다	.084	.367	.116	.191	-.397	-.174	-.013	-.079
18 그녀는 나를 거부한다	.055	-.035	-.076	-.165	.044	.683	.059	.084
14 그녀는 쌀쌀맞다	-.043	-.045	-.022	-.205	.061	.605	.080	.086
50 그녀는 나를 멀리한다.	.289	-.056	-.036	.111	-.033	.559	.180	.122
21 그녀는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	.180	-.198	.158	-.066	-.046	.550	-.064	-.017
31 그녀는 나에게 무관심하다	.258	-.103	.110	.022	-.078	.467	-.036	.143
44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	.187	-.242	.137	.133	-.173	.405	-.055	.322
35 그녀는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	.326	-.110	.012	.006	-.199	-.095	.535	.081
53 그녀는 불안해한다.	.195	.063	-.024	-.029	.056	.119	.520	.104
27 그녀는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	.201	.002	-.041	-.116	-.277	.162	.491	-.111
61 그녀는 많이 걱정한다	-.105	.092	.022	-.057	-.012	.008	.419	.084
62 그녀는 나에게 실망한다	.188	-.203	.030	-.036	-.130	.136	.416	.238
54 그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	.252	-.166	.084	-.175	-.047	.212	.406	.063
57 그녀는 나에게 공격적이다	.080	.061	-.047	-.011	.179	.029	.231	.618
55 그녀는 폭력적이다	.060	.062	.012	-.090	.027	-.012	.011	.588
20 그녀는 나를 함부로 대한다	.162	.030	-.100	-.108	.103	.268	-.092	.507
71 그녀는 나에게 벌을 준다.	.032	-.033	-.074	-.185	-.084	.092	.106	.369
고유치(eigenvalue)	15.70	6.86	3.22	2.53	1.71	1.40	1.32	1.15

표 3. 자기반응(RS)의 요인부하량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43 나는 그녀) 때문에 혼란스럽다.	.616	-.091	-.007	-.109	-.201	.097
35 나는 불안함을 느낀다.	.599	.000	-.020	-.123	-.278	.004
4 나는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낀다.	.567	-.071	-.018	-.169	-.029	.084
17 관계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몹시 괴롭다.	.559	-.085	.055	-.004	-.258	.160
73 나는 그녀)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	.539	-.143	.056	-.019	-.233	.082
37 나는 그녀)에게 화가 난다.	.536	.025	.001	-.287	-.262	-.052
76 나는 그녀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밉다.	.522	-.038	-.014	-.214	-.055	.145
26 그녀)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피한다.	.328	-.074	.026	-.003	-.078	.229
14 나는 그녀)가 나에게 중요하다고 느낀다.	.164	.743	.025	.182	-.032	-.030
51 나는 그녀)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018	.741	.003	-.027	.183	-.215
48 나는 그녀)에게 마음을 연다.	-.014	.738	.061	.164	.202	.143
62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118	.705	.050	.028	.008	.079
50 나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217	.705	.019	-.033	.124	-.023
75 나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224	.702	.048	-.079	.074	.048
32 나는 그녀)와 유대감을 느낀다.	-.214	.680	.051	-.118	.032	-.056
33 그녀)에게 나의 생각, 느낌, 소망들을 표현한다.	-.142	.679	.073	-.029	.009	.039
45 나는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162	.635	.029	.081	.096	.222
1 나는 그녀)에게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066	.610	.153	-.016	-.048	-.213
2 나는 그녀)를 격려한다.	-.085	.599	.158	.191	-.110	.056
55 나는 그녀)에게 의지한다.	.081	.563	-.214	-.220	-.048	.076
40 나는 그녀)를 이해한다.	-.173	.552	.211	.217	-.053	-.019
28 나는 그녀)에 의해 받아들여진다고 느낀다.	-.085	.519	.128	-.097	.043	.010
41 나는 그녀)에게 도움이 된다.	-.132	.503	.349	.095	.002	.007
8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다.	-.020	-.143	.737	-.028	-.068	-.013
25 나는 유능하다고 느낀다.	-.024	-.063	.708	-.140	.243	.116
9 나는 일이나 학업에서 나의 목표를 성취한다.	.003	.005	.675	-.162	.080	-.047
24 나는 성숙하게 행동한다.	-.067	-.008	.672	.048	.067	.067
47 내 스스로의 일은 내가 결정한다.	.140	.155	.660	.007	-.061	-.075
64 나는 책임감이 있다.	.172	.114	.638	.035	.171	-.013
22 나는 나만의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다.	-.038	.150	.536	-.084	-.130	.001
53 나는 자제력을 가진다.	.009	.093	.516	.174	-.097	-.130

표 3. 계속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5 나는 그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172	.021	-.011	-.726	.016	.027
58 나는 그녀)를 조종한다.	-.067	-.068	.115	-.702	-.108	-.068
30 나는 그녀)를 통제한다.	.087	-.009	.014	-.701	.119	.035
46 나는 그녀)에게 화를 낸다.	.298	.131	-.059	-.533	-.160	-.049
67 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364	-.013	.054	-.516	-.174	.353
42 나는 그녀)에게 반대한다.	.128	-.136	.043	-.496	-.174	.177
82 나는 그녀)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한다.	.263	-.119	.011	-.470	-.170	.141
66 나는 그녀)를 미워한다.	.137	-.230	.060	-.338	-.170	.226
49 나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다.	.226	-.200	.054	-.325	-.170	.054
68 나는 무기력해진다.	-.095	.038	-.089	.015	-.940	-.113
69 나는 좌절감을 느낀다.	.038	-.010	-.066	-.020	-.932	-.099
70 나는 스스로를 비난한다.	-.107	-.039	-.022	.017	-.816	.155
57 나는 우울해진다.	.207	.088	-.070	-.067	-.670	-.036
77 나는 절망스럽다.	.123	-.187	.053	-.064	-.547	.207
79 나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느낀다.	.123	-.063	.009	-.077	-.496	.207
78 나는 당황스럽다.	.223	-.214	.097	-.017	-.467	.289
81 나는 슬픔을 느낀다.	.302	.004	-.002	-.008	-.466	.173
74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300	-.078	-.004	.034	-.424	.184
56 나는 부끄럽다.	.050	.087	-.133	-.127	-.351	.191
18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다.	-.023	.153	-.001	.029	-.016	.575
16 나는 그녀)가 시키는대로 한다.	-.027	.269	-.068	-.182	-.038	.536
12 나는 그녀)가 나를 싫어한다고 느낀다.	.327	-.225	.013	.004	-.030	.515
34 나는 그녀)에 의해 통제된다.	-.002	.156	-.135	-.210	-.048	.508
7 나는 거부당했다고 느낀다.	.306	-.255	.004	-.057	-.063	.498
84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127	-.165	-.150	.096	-.231	.455
23 나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고 느낀다.	.241	-.221	.057	-.032	-.183	.398
72 그녀)와 사귀기에는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	.141	.094	-.060	.056	-.160	.320
고유치(eigenvalue)	17.61	6.90	3.76	2.82	1.87	1.58

다. 이에 따라 요인 3을 ‘독립적임’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상대방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하며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4를 ‘통제함’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상대방이 나에게 순종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는 요인 5를 ‘나에게 순종함’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나를 거부하고 멀리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요인 6은 ‘거부함’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7은 상대방이 나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요인 7을 ‘상처받음’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8은 상대방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며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요인 4의 내용과 유사성이 있으나, 문항의 내용이 좀 더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공격적임’이라고 명명하였다.

자기반응 (RS)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고유치 1.0을 넘는 요인의 수는 1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개의 요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비문항 84문항 중 6개의 요인에 속하는 문항

은 58개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59.54%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은 상대방의 반응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화가 나고, 양가감정을 느끼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요인 1을 ‘혼란스러움’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상대방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관계에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며, 도움을 주고 받는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는 요인 2를 ‘사랑받음’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자신을 독립적이고 유능하다는 자신감을 반영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를 ‘자신감’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는 요인 4를 ‘통제함’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무기력해지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우울해진다는 내용을 담은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5를 ‘무력감/우울’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상대방에게 통제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제되고 사랑받지 못함’으로 명명하였다.

각 구성요소들의 요인별 상관 및 내적 합치도를 표 4, 5, 6에 각각 제시하였다. 각 요소의 내적 합치도는 소망(Wish) .92, 타인반응(RO) .89,

표 4. Wish의 요인별 상관 및 내적합치도

W	1	2	3	4	5	6	α
1							.90
2	-.150*						.86
3	.077	.258**					.77
4	.444**	.030	.361**				.81
5	.711**	-.127*	.109	.612**			.91
6	.412**	.267**	-.132*	.161**	.401**		.86
7	.693**	.146*	.075	.509**	.673**	.575**	.90

* $p < .05$, ** $p < .01$ (2-tailed), 전체 내적합치도(α): .92

표 5. RO의 요인별 상관 및 내적 합치도

RO	1	2	3	4	5	6	7	α
1								.92
2	-.416**							.91
3	-.196**	.378**						.78
4	.612**	-.122**	.036					.87
5	-.071	.523**	.066	-.047				.79
6	.729**	-.499**	-.042	.496**	-.160**			.87
7	.660**	-.094	-.012	.670**	.153*	.532**		.81
8	.645**	-.241**	-.062	.630**	-.157*	.585**	.510**	.77

* $p < .05$, ** $p < .01$ (2-tailed), 전체 내적합치도(α): .89

표 6. RS의 요인별 상관 및 내적 합치도

RS	1	2	3	4	5	α
1						.91
2	-.391**					.93
3	-.164**	.375**				.86
4	.634**	-.265**	-.075			.87
5	.765**	-.313**	-.259**	.583**		.93
6	.683**	-.209**	-.221**	.550**	.687**	.83

* $p < .05$, ** $p < .01$ (2-tailed), 전체 내적합치도(α): .90

자기반응(RS) .90으로 대체로 높은 내적 합치도를 나타냈다.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와 IIP-C와의 관계

IIP-C와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는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IIP-C가 대인관계 문제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반해서,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는 심리내적인 관계와 잠재적인 갈등패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과 그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더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Wish), 타인반응(RO), 자기반응(RS)을 보고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그들이 갖는 소망과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며, 개발된 질문지의 타당성을

알아보는 데 일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각 구성요소와 IIP-C를 상관분석하였다.

상관분석은 모두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소망(Wish), 타인반응(RO), 자기반응(RS)과 IIP-C의 총점 및 통제

차원과 친애차원의 요인점수와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둘째, 소망(Wish), 타인반응(RO) 그리고 자기반응(RS)과 8분원 하위척도들을 통제차원과 친애차원의 가까운 정도에 따라서 두개씩 묶어서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이유는 표본 2의 자료로 IIP-C를 요인분석을 하여 원형구조를 살펴본 결

표 7. 대인관계 패턴 하위척도와 통제차원, 친애차원 요인점수 및 IIP-C 총점간의 상관계수

	통제	친애	IIP-C 총점	PABC	DEFG	HIJK	LMNO	
소망 (Wish)	1. 돕고 싶음	-.034	.134**	-.026	-.074	-.084	.026	.118**
	2. 반대하고 통제하고 싶음	.136**	-.036	.272**	.155**	-.020	-.112*	.001
	3. 독립적이고 싶음	.112*	-.100*	.050	.149**	.065	-.101*	-.086
	4. 성취하고 싶음	.018	.083	-.023	.009	-.071	-.006	.068
	5. 믿고 잘 지냄	-.066	.155**	-.018	-.087	-.114*	.068	.116*
	6. 보호받고 의지하고 싶음	-.055	.103*	.236**	-.077	-.075	.045	.092*
	7. 사랑받고 싶음	-.059	.161**	.107*	-.109*	-.127**	.076	.139**
타인 반응 (RO)	1. 신뢰할 수 없음	.072	-.082	.351**	.093*	.052	-.079	-.050
	2. 사랑하고 도움을 줌	.091	.107*	-.061	.053	-.106*	-.065	.124**
	3. 독립적임	-.010	.039	.087	-.047	-.002	.004	.038
	4. 통제함	.080	-.019	.337**	.095*	.003	-.095*	.013
	5. 나에게 순종함	.141**	.125**	.098*	.103*	-.122**	-.130**	.162**
	6. 거부함	.019	-.095*	.334**	.033	.085	-.052	-.058
	7. 상처받음	.100*	.011	.287**	.081	-.040	-.085	.056
	8. 공격적임	.138**	-.015	.297**	.153**	-.027	-.141**	.038
자기 반응 (RS)	1. 혼란스러움	-.032	-.078	.441**	-.007	.052	.040	-.085
	2. 사랑받음	.086	.187**	-.035	.038	-.162**	-.070	.196**
	3. 자신감	.171**	.041	-.188**	.168**	-.084	-.117*	.058
	4. 통제함	.190**	-.080	.413**	.217**	.017	-.176**	-.023
	5. 무기력/ 우울	-.046	-.072	.487**	-.049	.066	.047	-.070
	6. 통제되고 사랑받지 못함	-.045	-.050	.504**	-.035	.053	.018	-.040

* $p < .05$, ** $p < .01$ (2-tailed)

PABC= 적대적 지배, DEFG= 적대적 순종 HIJK= 우호적 순종 LMNO= 우호적 지배

과가 선행연구(정남운, 2001)의 결과보다 시계방향으로 더 회전되었으며, 하위요인을 두개씩 묶어서 보는 것이 지배-순종, 우호-적대의 특성을 잘 설명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Kiesler (1983)의 대인관계 원은 이론적으로 모두 16분원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웃한 16분원들은 합쳐져 8분원이 될 수도 있고, 4분원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4분원의 경우 각각은 적대적 지배, 적대적 순종, 우호적 순종, 우호적 지배로 명명된다(Carson, 1969; 정남운 1999, 재인용). 셋째, 소망(Wish), 타인반응(RO), 자기반응(RS)의 하위요인들과 IIP-C 문항의 상관을 구해서 각 하위요인별로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비록 순수한 의미의 통계적 분석은 아닐지라도 각 구성요소의 하위척도들에서 높은 점수를 갖는 집단들이 어떤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줄 것이라는 판단에서 실시하였다. 표 10에는 대인관계 패턴 하위척도와 IIP-C의 총점 및 통제차원, 친애차원 요인점수간의 상관을 제시하였다.

소망(Wish)과 IIP-C 총점과의 상관은 $-.026 \sim .272$ 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구성요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어느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소망은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이루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문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반대하고 통제하고 싶음', '보호받고 의지하고 싶음'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통제와 의존이라는 주제가 상담 장면에서 많은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소망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것은 타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상담에서 통제와 의존이라는 주제가 많이 다루어진다

는 것은 이 두 가지 주제가 대인관계 문제와 많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소망(Wish)과 IIP-C 통제차원, 친애차원 요인점수와의 상관분석 결과 '반대하고 통제하고 싶음'과 '독립적이고 싶음'은 통제차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돕고 싶음', '믿고 잘 지냄' 그리고 '사랑받고 싶음'은 친애차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임으로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4분원 하위요인 상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대하고 통제하고 싶음'과 '독립적이고 싶음'은 적대적 지배(PABC)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우호적 순종(HIJK)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경향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과 적의를 보이는 적대적 지배의 태도를 갖고 있는 피험자들이 반대하고 통제하고 싶은 소망과 독립적이고 싶은 소망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자신의 필요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휘둘리고 이용당하기 쉬운 우호적 순종의 태도를 갖고있는 피험자들은 이러한 소망을 적게 갖고 있을 수 있다. '믿고 잘 지내고 싶음'과 '사랑받고 싶음'은 우호적 지배(LMNO)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적대적 순종(DEFG)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남에 대한 지나친 배려,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려고 하는 태도를 지닌 우호적-지배 반응 피험자들이 적어도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믿고 잘 지내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소망을 많이 갖고 있거나 보고하고 있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불편함과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회피적인 태도를 갖는 적대적-순종 반응 피험자는 이러한 소망을 적게 갖고 있거나 적게 보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상담 전과 상담 후의 소망의 내용이나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를 연구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타인반응(RO)의 경우, IIP-C 총점과의 상관에서 부정적인 타인반응의 내용을 담은 요인들('신뢰할 수 없음', '통제함', '거부함', '상처받음', '공격적임')과 IIP-C 총점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대인관계 상의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인식할 때 더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IP-C 통제, 친애 차원을 구분해서 살펴 보았을 때, '공격적임'은 통제차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나에게 순종함'은 통제차원과 친애차원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를 하위요인 상관을 통해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 보면, '사랑하고 도움을 줌'은 우호적 지배(LMNO)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나에게 순종함'은 적대적 지배(PABC) 그리고 우호적 지배(LMNO)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적대적 순종(DEFG)과 우호적 순종(HIJK)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공격적임'은 적대적 지배(PABC)와는 정적상관이, 우호적 순종(HIJK)과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호적-지배 피험자들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도움을 주며, 나에게 순종한다고 느끼고 있고, 적대적-지배 피험자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적이라고 느끼면서 동시에 나에게 순종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우호적 지배, 적대적 지배 피험자들이 모두 상대방이 나에게 순종적이라는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대인관계 상에서 사람들이 우호적인 사람에게는 우호적으로 적대적인 사람에게는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지배적인 사람에게는 순종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대인관계 상보성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반응(RS)의 경우, 부정적인 자기반응을 나타내는 요인들('혼란스러움', '통제함', '무력감/우울', '통제되고 사랑받지 못함')과 IIP-C 총점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대인관계상의 문제가 많을수록 자신의 반응도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신감', '통제함'은 통제차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사랑받음'은 우호적 지배(LMNO)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적대적 순종(DEFG)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독립적임'과 '통제함'은 모두 적대적 지배(PABC)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그리고 우호적 순종(HIJK)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우호적 지배 피험자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사랑받는다느 느낌을 많이 갖고 있고, 적대적-순종 피험자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적대적-지배 피험자들은 자신이 독립적이고 상대방을 통제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와 반대에 위치한 우호적 순종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우호적 지배 피험자들에게서는 '사랑받음', 적대적 지배 피험자들 사이에서는 '자신감'이라는 긍정적인 유목이 적어도 하나씩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순종영역의 피험자들에게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반응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결과가 지배적인 피험자들이 실제로 긍정적인 자기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일종의 방어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표 8, 9, 10에는 상관분석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대인관계 패턴 하위요인들과 IIP-C 문항간의 상관을 구해,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선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비록 순수한 의미의 통계적 분석은 아닐지라도 각 구성요소의 하위척도들에서 높은 점수를 갖는 집단들이 어떤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줄 것이라는 판단에서 실시하였다.

표 8. 소망(Wish) 하위요인에 대한 IIP-C 대표문항

문항	상관
요인 1: 돕고 싶음	
47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130**
39 다른 사람에게 너무 관대하다.	.107**
요인 2: 상처주고 반대하고 싶음	
25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변화시키려고 한다.	.140**
57 사람들에게 양갈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다.	.136**
요인 3: 독립적이고 싶음	
41 너무 쉽게 흥분하며 화를 낸다.	.122**
51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	.122**
요인 4: 성취하고 싶음	
41 너무 쉽게 흥분하며 화를 낸다.	.124**
15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믿는다.	.117**
요인 5: 믿고 잘 지냄	
47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146**
23 다른 사람의 기분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115**
요인 6: 보호받고 의지하고 싶음	
54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지한다.	.173**
22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내 관점을 고수하기 어렵다.	.126**
요인 7: 사랑받고 싶음	
24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기를 지나치게 원한다.	.239**
23 다른 사람의 기분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187**

* $p < .05$, ** $p < .01$ (2-tailed)

표 9. 타인반응(RO) 하위요인에 대한 IIP-C 대표문항

요인 1: 신뢰할 수 없음	
57	사람들에게 양갈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다. .129**
26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098**
요인 2: 사랑하고 도움을 줌	
47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133**
49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논쟁을 벌인다. .112**
요인 3: 독립적임	
47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145**
30	다른 사람의 비판을 무시하기가 어렵다. .106**
요인 4: 통제함	
57	사람들에게 양갈음하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게 많다. .121**
33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조종한다. .110**
요인 5: 나에게 순종함	
33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조종한다. .177**
49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논쟁을 벌인다. .128**
요인 6: 거부함	
35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믿기가 어렵다. .095**
31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자신의 필요보다 지나치게 앞세운다. .091**
요인 7: 상처받음	
17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한다. .142**
57	사람들에게 양갈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다. .116**
요인 8: 공격적임	
33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조종한다. .165**
57	사람들에게 양갈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다. .152**

* $p < .05$, ** $p < .01(2-tailed)$

표 10. 자기반응(RS)하위척도에 대한 IIP-C 대표문항

요인 1: 혼란스러움		
56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게 많다.	.129**
58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거리를 둔다.	.110**
요인 2: 사랑받음		
47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188**
54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지한다.	.137**
요인 3: 자신감		
25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변화시키려고 한다.	.162**
48	다른 사람을 웃기기 위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	.144**
요인 4: 통제함		
57	사람들에게 양갓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다.	.201**
25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변화시키려고 한다.	.181**
요인 5: 무력감 우울		
44	'나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기가 어렵다.	.159**
35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믿기가 어렵다.	.135**
요인 6: 통제되고 사랑받지 못함		
50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피한다.	.111**
31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자신의 필요보다 지나치게 앞세운다.	.093**

* $p < .05$, ** $p < .01$ (2-tailed)

논 의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개입하여 왜곡된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을 수정하는 것이 상담에서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연구방법자체가 연구자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질적분석이 대부분이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질적인 분석이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풍부한 내용과 그 과정을 상세히 연구해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나, 이것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양적인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을 통해 소망(Wish) 7요인 51문항, 타인반응(RO) 8요인 53문항, 자기반응(RS) 6요인 58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162개의 최종문항을 완성하였다. 각 구성요소들의 내적합치도는 소망(Wish)은 .92, 타인반응(RO)은 .89, 자기반응(RS)은

.90으로 대체로 높은 내적합치도를 나타냈다. 이는 대인관계 패턴의 구성요소인 소망(Wish), 타인반응(RO), 자기반응(RS)이 다양한 요인들로 구분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Luborsky의 표준유목이 자기 보고식 질문지에도 대체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와 IIP-C의 상관분석을 통해 특정한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Wish), 타인반응(RO), 자기반응(RS)을 보고하는지를 알아봄으로서 부분적으로나마 본 질문지의 수렴타당도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소망(Wish)에서는 '반대하고 통제하고 싶음'은 통제차원과 '보호받고 의지하고 싶음'은 친애차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타인반응(RO)에서는 '공격적임'은 통제차원과 '나에게 순종함'은 친애차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자기반응(RS)에서는 '사랑받음'은 우호적 지배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독립적임', '통제함'은 적대적 지배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서 부분적으로나마 본 질문지의 수렴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IIP-C 4분원과의 상관분석을 통해서 소망(Wish)에서는 '반대하고 통제하고 싶음', '독립적이고 싶음' 유목이 적대적 지배와는 정적상관을 우호적 순종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반면, '믿고 잘 지내고 싶음'과 '사랑받고 싶음'은 우호적 지배와는 정적상관을 적대적 순종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타인반응(RO)의 경우에는 '사랑하고 도움을 줌'은 우호적 지배와 정적상관이, '나에게 순종함'은 적대적 지배, 우호적 지배와 정적상관을 적대적 순종과 우호적 순종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공격적임'은 적대적 지배와는 정적상관이 우호적 순종과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반응(RS)의 경우에서도 '사랑받음'은 우호적 지배와 정적상관을 적대적 순종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는 특정한 대인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되는 대인관계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남에 대한 지나친 배려,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우호적 지배 영역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소망이 큰 반면,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불편함과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회피적인 태도를 갖는 적대적 순종 영역의 대인관계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망들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적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러한 것들이 의식적인 차원의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관계에 대한 연구가 보다 깊게 진행된다면 상담자가 특정 대인관계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진 대인관계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는 아직 가정 단계이고 이를 위한 연구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보다 직접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으나, 이를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인 요인구조를 얻기에는 사례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과 변인의 비율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례수에 부합하지는 하나, 이로 인해 요인구조가 다소 불안정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사례수를 이용하여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많은 문항수로 인하여 질문지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알아보는

작업을 하지 못했다.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질문지가 실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문항들을 축소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표본은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게다가 표집과정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질문지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연령, 학력, 직업 등이 다양하게 구성된 표본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이 질문지는 한 개인에게 하나의 단일한 대인관계 패턴이 있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본 질문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친구(이성, 동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위의 가정을 검증할 수 없었다. 추후연구에서는 부모, 형제, 친구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실시한 후, 개인에게 특정한 대인관계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은 모두 외국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대인관계 패턴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 및 상담자들과의 의논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소망(Wish), 타인반응(RO), 자기반응(RS)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검토한 후, 새로운 문항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진 (1997).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패턴과 내적 갈등.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신희천 (2001). 내담자의 핵심적 갈등관계에 대한

해석과 작업동맹 그리고 상담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정남운 (1999). 대인관계적 심리치료 이론에서 본 내담자 문제와 상담자 전략: 개관. 서울대학교 심리과학, 8(1), 61-89.
 정남운 (2001).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의 구성. 서울대학교 심리과학, 10(1), 117-132.
 하정혜 (1992). 상담과정에서의 내담자 대인관계 패턴 변화에 관한 시계열 복수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521-536.
 Baber J. P., Crits-Christoph P. (1993) Advanced in measures of psychodynamic formul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574-585
 Baber J. P., Crits-Christoph P. & Luborsky (1998). A Guide to the CCRT standard categories and their classification. In L. Luborsky Crits-Christoph (Eds.),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pp. 43-54). New York: Basic Books.
 Baber J. P., Foltz C., Weinryb R. M. (1998). The Central Relationship Questionnaire: initial re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31-142.
 Bond, J., Hansell, J., & Shevrin, H. (1987). Locating transference paradigms in psychotherapy transcripts; Reliability of relationship episode location in the CCRT Method. *Psychotherapy*, 24, 736-749.
 Carson, R. C. (1969). *Interaction concepts of personality*. Chicago: Aldine.

- Crits-Christoph, P., & Luborsky, L. (1990). The perspective of patients versus clinicians in the assessment of central relationship themes. In L. Luborsky & Crits-Christoph(Eds.),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pp. 197-210). New York: Basic Books.
- Crits-Christoph, P., & Luborsky, L., Dahl, L., Popp, C., Mellon J., & Mark, D., (1988) Clinicians can agree in assessing relationship patterns in psychotherapy; The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Meth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 Kiesler, D. J. (1983). The 1982 interpersonal circle: A taxonomy for complementarity in human transactions. *Psychological Review*, 90, 185-214.
- Luborsky, L. (1976) Helping alliances in psychotherapy: The groundwork for a study of their relationship to its outcome. In J. Claghorn (Eds.), *Successful psychotherapy*(pp.92-116). New York: Brunner/Mazel.
- Luborsky, L. (1977) Measuring a pervasive psychic structure in psychotherapy: The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In N. Freedman & S. Grand(Eds.), *Communicative structures and psychic structures*(pp.367-395). New York: Plenum Press.
- Luborsky, L. (1998). The convergence of Freud's observations about transference with the CCRT evidence. In L. Luborsky & Crits-Christoph (Eds.),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pp. 307-326). New York: Basic Books.
- Luborsky, L., Baber, J. P., & Crits-Christoph, P. (1990). Theory-based research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281-287.
- Luborsky, L., Crits-Christoph, P., (1990)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 New York: Basic Books.
- Luborsky, L., Crits-Christoph, P., Frideman, S., Mark, D., & Schaffler, P.(1991). Freud's transference template compared with the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CCRT); illustrations by the two specimen cases, In Horowitz, M(ed) *Person Schemas and maladaptive Interpersonal Patterns* (pp167-19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uborsky, L., Crits-Christoph, P., Levine, F., & Alexander, K.(1985). A verification of Freud's grandest clinical hypothesis; the Transference, *Clinical Psychology*, 54, 39-47.
- Luborsky, L., & McLellan, A. T., Woody, G. E., O'Brien, C. P., & Averbach, A. (1985). Therapist success & its determin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 602-611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rupp, H., & Binder, J.(1984). *Psychotherapy in a new key; a guide to time-limited dynamic psychotherapy*. New York:Basic

원 고 접수일 : 2004. 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4. 10. 23

게재결정일 : 2004. 11. 11

The Development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 Questionnaire

Ji-Hee Yun

Nam-Woon Ch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 Questionnaire(IRPQ). IRPQ consists of Wish, Response of Other(RO) and Response of Self(RS) based on the definition of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CCRT) made by Luborsky. Total 245 items were prepared, which were selected from CCRT standard category version 2 and items of the Central Relationship Questionnaire(CRQ). In study I Exploring factor analysis was done with the above 245 items and finally total 162 item for IRPQ was completed. the final item(162 items) consists of 51 items for Wish, 53 items for RO, 58 items for RS and their reliability was examined. Cronbach α was .92 for Wish, .89 for RO, .90 for RS. In study II the factor structure of the IRPQ was confirmed with different sample and the constructs of the IRPQ was correlated with sum score of the IIP-C.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of the IRPQ was similar to that of study I.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RPQ and IIP-C was as following. First, It showed that subscales of Wish with sum score of the IIP-C was low. However, 'To Oppose Other' and 'To Be Protected' subscales among subscales of Wish correlated positively with sum score of IIP-C. Futhermore, the subscales corresponding Negative RO and RS were correlated positively with sum score of IIP-C. Second, correlation constructs of IRPQ with control dimension and affiliation dimension of IIP-C analysed.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o Oppose Other' and 'To Be Independent' sutscales of Wish correlated positively with control dimension and 'To Be Protected' and 'To Be Loved' subscales correlated positively with affiliation dimension. 'Submissiveness', 'Hurt', and 'Aggressiveness' subscales of RO correlated positively with control dimension and 'Loves Me' and 'Submissiveness' subscales correlated positively with affiliation dimension. 'Self-Confident' and 'Controlling' subscales of RS correlated positively with control diminsion and 'Feel Loved' correlated positively with affiliation dimens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and psychotherapy practice.

Key Words :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 Questionnaire, CCRT, CRQ*